

Mrs. Dalloway—實驗과 主題

金 秀 宗

G. S. Fraser는 Virginia Woolf의 小說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Reading Mrs. Woolf, we must not be chiefly interested in the active crush of character or the intricate working out of plot. What she does convey with almost unequalled delicacy is the complicated "sensation of living", of living from moment to moment, each moment having its own distinctive complexity of color, texture, shape. Her characters do not engage other characters in overt dramatic conflict: rather, they wander through the park, looking at the play of light on leaves and grass, observe the dogs and nursemaid, the banana peel on the gravel path, the crinkled face of bedraggled old man on a bench, while some tenuous but profound "inner" conflict plays itself out within their own selves in terms of this pattern of sensation. What bounds the human creature for Mrs. Woolf is not the edge of his skin but the outer limits of his perceptions: and thus it is harder for her characters, each tightly and impalpably closed in an exquisite world of his own, to communicate or to come into any sort of collision than for characters more crudely conceived. For any view of the sunset does not communicate or collide with yours.¹⁾

여기에서 Fraser는 Woolf文學의 中心的意義가 전래의 諸질서에 對한 因襲의 依存에서 부터 순간의 存在 또는 全一한 意識에의 確固한 信念으로 代置되었다는것을 示唆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同時에 「現實」 그 自体가 公的으로 組織化된것이 아니라 個人的印象의 問題가될때 다시말해서 感受性만이 唯一한 現實인 個性을 表現할 수 있는것이라면 모든 既成價値는 除外되고 個人과 個人間의 交感이라는 것만이 肝要한 問題가 된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있다.

그리고 感受性은 個人自体에서 成長하고 個人的 思考, 個人的 意識속에서 認知되는 것이기 때문에 孤獨하게 隱蔽된 個個人的 意識 各各 獨自의으로 各各의 過去에 依해서 決定되어 있는 意識이 構成하는 世界에서, 個人과 個人間의 眞實한 전달은 不可能하다 하지는 않더라도 지극히 困難해 진다. 따라서, Woolf의 作品은 個人이 처음에는 고독속에서 다음에는 社會속에서 存在할때의 內的的生活의 研究로서 또한 이들의 樣相에 隨伴되는 微妙한 旋律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1) G. S. Fraser: The modern writers and his world, pp. 127-128.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作品은 그 어느것이나 行動의 世界를 떠나서 조용한 中心部를 向하고 있으며 물처럼 흘러서 맞지않는 意識의 世界에 眞理를 探求하려고 하는 것이다.

Woolf의 小說中에서, 흔히 「To the Light house」가 그 代表作으로 指目되고 있으나, 어느 意味에서 「Mrs. Dalloway」 또한 이에 못지않게 本質의인 作品으로 높이 評價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이 小說이 「Monday or Tuesday」에서 「Jacob's Room」을 거쳐 Woolf의 積極의인 實驗에 依하여 비로서 完全한 統一性을 이루었다는데에 그 重要性이 認定될 것이며, 그 둘째로는 그녀의 代表作으로서 보다 높이 評價될 수 있는 「To the Lighthouse」와 比較해볼때 그 抽象的 理想主義的 主題에 對해서 보다 具體性이 強하고 따라서 그만큼 現實的이며 親近感을 준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小論에서는 Woolf가 小說「Mrs. Dalloway」에 이르러 비로써 實驗한 劃期的이고도 獨創的인 手法과 그에 따르는 主題를 考察해본다. 그러면 우선 이 小說이 發表되었던 1925年을 前後한 英國의 時代背景을 잠시 概觀하는것을 基點으로 삼아 作家가 모색한 方向을 追求해 보기로 한다.

I

第一次 世界大戰은 Victoria 朝 以來의 所謂 偉大한 樂觀이라는 英國國民의 깊은 潛在意識的 社會自信을 完全히 파괴했다. 그런데 이 疑惑과 不安과 混亂의 時代는 그 문학에 있어서 創造的인 實驗의 極히 重要한 時期와 때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Woolf는 1924年 Cambridge 大學에서 朗讀한 그녀의 論文 「Mr. Bennett and Mrs. Brown」에서 H.G. Wells, Arnold Bennet, John Galsworthy 등을 Edwardian이라고 부르고 E. M. Foster, D. H. Lawrence, Lytten Strachey, James Joyce, T. S. Eliot 등을 Georgian이라고 불려서 確實히 區別하고 1910年 12月頃을²⁾ 境界線으로해서 모든 人間關係는 變했으므로 따라서 小說에 있어서의 性格創作의 方法도 變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것은 既成秩序에 對한 또한 그것이 간직해온 바 價値觀에 對한 信賴에 對항하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Woolf가 上記한 Edwardian을 materialist라고 規定한 것은 이 사람들은 마치 公的인 價値의 Pattern이 아직도 存在하고 있어 個人的 經驗에서 重要한 것은 例外없이 結婚 財產 또는 物的 環境의 人爲的 變化 등과 같이 人間の 社會諸制度에 對한 關係에 즈음하여 表現할 수 있다는 態度로 人生을 描寫하는 것이 常例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自身の 時代에 있어서의 感受性의 重要한 變化에 外面하는 鈍感으로 말미아마 그들의 時代의 보다깊은 精神을 強力

2) Roger Fry가 London에서 Post-Impressionist 美術展覽會를 열었다. 이것이 새로운 文學藝術運을 推進하는 힘이되었다.

하게 表現할 可能性을 스스로 斷絶했든 것이다.

1910年代에서 1920年 初期에 걸쳐 英國의 詩와 小說은 分明히 大轉換의 징후를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Edward 七世時代의 특징인 自己滿足의인 傾向이나 弛緩한 技巧은 젊은 作家들에게는 猛烈한 絶緣의 對象이 되었고 새로운 詩人들은 現代英國詩의 無味乾燥한 頹廢性이나 Victoria 朝詩人들의 獨善的인 態度, 그리고 浪漫派詩人들의 天空을 飛翔하는 듯한 朦朧함을 느끼게 하는 詩를 猛烈히 排斥했다.

이러한 낮은 價値體系의 崩壞는 人間의 希望이나 行動에 對해서도 새로운 “realism”을 이르켰다. 即 事實은 아무리 不決한 것일지라도 事實을 正視하고, 人間은 이미 完全을 바라보며 확보하는 거인은 아니며 完全한것을 알 수는 있으나 끝내는 不完全을 免치못하는 矮少한 生物 이며 猛烈히 自己를 鍛鍊하므로써 어느 程度의 문화성을 獲得할 수 있을런지 도모른다—고 생각하는 T. E. Hulme³⁾의 思考方式이 나온것이다.

James Joyce의 「Ulysses」는 이 새로운 實驗主義와 人間社會에 對한 새로운 悲慘한 “realism”의 態度를 同時에 상징하는 作品이다. D. H. Lawrence도 豫言的 作家의 立場에서 필경 새로운 걸사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詩에서는 Georgian詩人들의 全盛속에 T. S. Eliot가 最初의 詩集 「Prufrock and Other Observations」에 이어 詩集「Ara Vos prec」과 評論集 「The Sacred Wood」를 發表한다을 마침내는 그 手法과 主題의 點에서, 時代의 中心을 이루는 「The Waste Land」에 到達한다. 小說에서는 Katherine Mansfield가 珠玉같은 단편을 남기고 Dorothy Richardson의 「Pointed Roof」, 「Backwater」, 「Honeycomb」等이 續續 刊行되고 있었으며 Rose Macaulay가 活躍을 시작하고 T. F. Powys의 諷刺的 田園小說, 그리고 Aldous Huxley의 作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時代의 젊은 作家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現實의 혼돈상과 더불어 人間自體의 內部에 對한 모색을 徹底히 究明했으며 人間의 意識과 行動의 說明될 수 없는 部面이 새로운 문학의 領域가운데 편입되었다. 그리고 Freud가 主張한 潛在意識 (Subconsciousness)의 學說등의 새로운 心理學方法은 문학의 視野를 擴大해 주었던 것이다. 이른바 「意識의 흐름」 (Stream of Consciousness)⁴⁾이란 技法도 이러한 深層心理學의 世界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Woolf는 處女作 「The Voyage Out」에 이어 「The Night and Day」를 낸다음 Style 習作의

3) 詩壇에 있어서의 Imaginism 主唱者의 一人이며 Rousseau式의 Humanism을 非難하고 人間과 神사이의 不連續生을 說波했으며 神의 絶對性을 主張하고 Romanticism의 弊害를 指摘하여 獨特한 Classicism을 主唱하였다.

4) 元來 意識의 連續性과 流動性을 다타내기 爲하여 William James가 使用한 心理學에 緣由된 말로서 外部에 나타나는 行動보다도 內部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意識 또는 意識의 底流 即 潛在意識에 重點을 둘새 文學에 轉用된것이다. Mary Sinclair가 Dorothy Richardson의 小說을 評했을때 最初로 使用된 文學用語이다.

단편집 「The Monday or Tuesday」를 試圖하고 나서 實驗의 第一步으로써 「Jacob's Room」을 發表했다.

그녀는 이미 20歲무렵 Strachey에게 보낸 편지에서 小說에서의 “Plot”⁵⁾는 重大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要컨데 Woolf는 기위 固定된 “Plot”와 外面的描寫, 또는 觀念化되었거나, 感傷主義的小說은 人生의 眞實한 모습을 把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自覺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mine for a moment an ordinary mind on an ordinary day. The mind receives a myriad impressions……trivial, fantastic, evenescent, or engraved with the sharpness of steel. From all sides they come, an incessant shower of innumerable atoms; and as they fall, as they shape themselves into the life of Monday or Tuesday the accent falls differently from of old……

그러므로 人間으로서 노예가 아니라면 쓰는 글에 “Plot”도 없고 悲劇이나 喜劇도 色情이나 大團圓도 없어질 것이라고 極端的인 말을 하고 있다. 이어서 Woolf는 다음과 같이 그녀의 小說觀點을 밝히고 있다.

Life is not a series of gig lamp symmetrically arranged: life is a luminous halo, a semitransparent envelope surrounding as from the beginning of consciousness to the end. Is it not the task of the novelist to convey this varying, this unknown and uncircumscribed spirit, whatever aberration of complexity it may display with as little mixture of the alien and external as possible? We are not pleading merely for courage and sincerity: We are suggesting that the proper staff of fiction is a little other than custom could have believed it⁶⁾.

이것은 “Stream of Consciousness” 系列의 小說의 本質的要素를 說明해 주고 있는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Woolf는 初期의 作品에서는 E. M. Foster의 影響을 많이받고 있는 것이 느껴지며 形式에 있어서 매우 實驗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Foster의 型을 따라 人間關係의 機微를 탐색하는데 專念하고 있다. 그녀는 小說이 어떠한 主題를 取扱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種類의 性格이 그녀 自身이 表現하기에 가장 適合한가를 알아내기를 바라고있다.

「Voyage Out」는 젊은 處女 Rachel Vinrace가 沈滯한 環境에서 人生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사랑을하고 죽어가는 이야기다. 「Night and Day」는 또하나의 젊은處女 Katherine Hilberry의 이야기다. 보다 冷靜하고 洗練된 여성자는 사랑에 빠진다거나 結縲한다는 것은 人生을 떠나서 沈

5) cf. “A story is a narrative of events arranged in their time-sequence. A plot is also a narrative of events, the emphasis falling on causality.”

<E. M. Foster: Aspects of the Novel. p. 116>

6) “Modern Fiction” <The Common Reader, First series, 1925, p. 189>

滯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두편의 小說에서는 主人公의 冥想을 纖細하게 描寫하고 있는 특징을 볼수있다. 이것은 곧 「心理的」이라고 바꿔말할 수 있을 것이다.

「Jacob's Room」은 作家의 實驗의 長篇小說의 第一號이다. 이 小說은 主人公Jacob의 存在와 行動을 그가 意識속에 받아드리게 되는 사람들의 影響,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意識에 주는 영향, 이 兩者의 交錯에 依해서 暗示한것이다. Story는 전혀 없고 14개로 構成된 어느 'Section'이나 모두가 斷片的이다. 視點은 主人公에게도 重要人物에게도 固定되어 있지 않고 場所는 Cornwall, Cambridge, London, Athens로 옮겨진다. 멀리 떨어진 場所가 同時에 並列되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 몇페이지의 紙面을 차지하는가 하면 重要한 場所가 몇 줄로 끝나버린다. 때로는 作家의 인생철학이 展開되기도 한다. Jacob는 이러한 斷片을 連結하는 役割을 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 이 作品에서는 幼年時節부터 成長해서 戰死할때까지의 Jacob의 「방」即 그의 周邊이 그려놓아졌을 뿐이다. 그의 母親이나 친구들도 모두가 그 방의 一部分인 것이다.

여기에는 傳統的小說의 要素를 全적으로 剝奪해 보려는 意圖가 보이나 「時間」은 例外이고 각 section이 年代順으로 이어져간것은 根本적으로 心理的인 問題—意識이라는 것과 時間과의 關係—는 充分히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意味에서 이 作品은 後期印象派의 手法에 依한 skerch集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나 近代繪畫의 點描法을 느끼게하는 印象의 表出이 애매하다고 할 것이며 堅固性이나 비판적 要素가 缺如되어 있다.

II

「Mrs. Dalloway」에 이르러 Woolf는 처음으로 時間形式을 分裂시키는 試圖를 했으며 “Stream of Consciousness”란 手法을 自由自在로 驅使할 수있었던 것이다.

이 小說에서 Woolf는 단 하루라는 集約된 時間을 통하여 「London」이라는 단 하나의 限定된 地域에서 主人公의 흐르는 內面意識만을 追求하므로써 30年間の 事件을 그려내는 實驗을했다. Woolf는 回想이 現在의 意識과 어떻게 交錯되며 또 過去가 個人的 精神과 感情속에 있는 現在를 어떻게 制約하느냐를 탐구하므로써 主要人物의 過去에 對해서 現在와 關聯이 있는 모든것을 分明히 밝히고 있다.

元來 小說에서 時間의 問題는 事件의 嚴密한 發生順을 지킬 必要에 依하여 拘束感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作家는 造型美術家가 空間에서의 움직임의 自由로움이나 눈에 하나의 全体를 提示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羨望한다. 詩는 勿論 散文보다 自由롭다. 詩人은 항상 어떠한 破格이 許容되어 現在에서 過去로, 過去에서 未來로 飛躍하고 嚴重하지 않는 時間의 形式속에서 그들의 直觀을 組立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從來 小說은 束縛되어 있어서 行動의 世界를 그리는 일에 極限되어 있었으므로 原因, 結果의 連鎖를 表現해야만 했다.

Woolf는 이 時間의 連鎖가 單純한 性格描寫에나 創造된 人物의 內的生活의 展示에도 不合理한 것이라고 생각했든것이다. 現在는 單純한 現在가 아니라 모든 過去의 壓力을 떠받치고 흘러 들어오는 數많은 生涯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未來는 또한 항상 現在에 그 그림자를 던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直接주어지는것은 모든 過去를 등에 걸머지고 未來를 가슴에 안고 있는 두꺼운 心理的인 現在時일 뿐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한時間은 時計의 盤面에서는 五十倍 百倍에 相對될 수 있는 것이다. 지극히 神秘스러운 實在인 人間精神을 밝히기 위해서는 數十個의 다른 時間이 意識의 同一平面上에서 同時에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形式으로 小說을 써보자는 意圖가 여기에서 實現된 것이다.

이 小說은 第一次世界大戰이 끝난 5年後인 1923年 6月中旬 어느 水曜日 午前 10時頃부터 그날밤에 이르는 約 14時間동안에 몇몇 男女들이 體驗한 일들을 主로 人物의 心理를 通해서 熟寫한 것이다. 이야기는 Clarissa Dalloway와 Septimus Warren Smith를 各各 中心人物로 하여 두개의 平行線으로 뻗어나간다.

Clarissa는 50歲가 지난 지금도 아직 魅力을 發散하는 社交婦人이다. 큰病을 앓고 난후로는 죽음의 豫感과 夫婦生活이 원할치 못함을 고민한다. 그녀의 男便Richard Dalloway는 保守黨 下院議員이며 政治家로서 相當한 地盤을 構築해 놓았으나 아직 入閣할 可望은 없다. 이날밤도 Clarissa는 男便을 위하여 自宅에서 盛大한 Party를 연다.

그날아침 婦人이 꽃을 사러 나가는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어 各界의 名士 特히 國務總理까지 參席하는 華麗한 Party가 無事히 끝나고 차레로 손님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漸次집안이 밤의 靜寂속으로 파묻쳐가는 대목에서 끝나고 있다.

Clarissa의 周圍의 人物들은 젊은 時節 그녀에게 失戀해서 印度로 건너가 官吏가 된 理論家이며 情熱家요, 그리고 人生의 낙오자인 Peter Walsh가 있고 母親을 탐지않아 社交를 싫어하는 딸 Elizabeth, 그리고 狂信的인 不幸한 老處女家庭教師 Kilman, Clarissa가 少女時節 熟描한 同性愛에 빠졌던 Sally Seten 등이 있다. 그리고 Septimus를 中心으로 하는 所謂 “by-plot”의 人物들은 Italy태생인 그의 아내 Lucrezia, 主治醫 Holmes, 精神病專門醫 Sir William 등의 人物이 있다. Septimus는 大戰에 出征中 Lucrezia와 結婚해서 London으로 돌아와 幸福한 家庭生活을 하고 있었으나 이 內直性이고 文學을 좋아하는 青年은 彈丸衝擊이 原因으로 發狂하고 마침내는 自殺을 하게 된다.

이 두갈래의 이야기는 各各 現在와 過去를 交錯시키면서 發展해 간다. 各人物의 印象과 思念은 內面的獨白의 形式에 依해서 傳達되며 그 獨白에서 나타나는 回想과 期待에 依하여 時間은 自由自在로 過去에 되돌아가고 또한 未來로 연장된다. Clarissa Dalloway의 結婚以前の 生活이나 Peter나 Sally의 交情이 傳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回想의 形式에 依한 것이다. 이 現在와 過去의 自由스러운 交錯은 作品의 첫 머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Mrs. Dalloway said she would buy her flowers herself. For Lucy had her work cut out for her.

The door would be taken off their hinges: Rumpelmayers man were coming. And then thought Clarissa Dalloway, what a morning—fresh as if issued to children on a beech.

What a lark! What a plunge! For so it had always seemed to her when, with the little squeak of the hinges, she could hear now, she had burst open the French window and plunged at Bourton into the open air. How fresh, how calm, stiller than this of course, the air was in the early morning: like a flap of a wave: the kiss of a wave: chill and sharp and yet (for a girl of eighteen as she then was) solemn, feeling as she did standing there at the open window, that something awful was about to happen: looking at the flowers, at the trees with the smoke winding off them and the rooks rising, falling: standing and looking until Peter Walsh said, "Musing among vegetables?"—was that it?—I prefer men to cauliflowers—was that it? He must have said it at breakfast one morning when she had gone out on the terrace—Peter Walsh. He would be back from India one of these days, June or July, she forgot which, for his letters were awfully dull: it was his sayings one remembered: his eyes, his pocket-knife, his smile, his grumpiness and, when millions of things had utterly vanished—how strange it was!—a few sayings like this about cabbages."

第一行만이 客觀的 敘述이고 다음부터는 主人公의 內面世界로 들어가고 있으며 세 번째 Paragraph는 完全히 「意識의 흐름」만으로 되어있다.

Clarissa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때의 "Squeak"는 過去 Bourton" 時節의 "Squeak"를 聯想케 하여 18歲의 少女時節이 回想된다. 그리고 "What a lark! What a plunge!"는 그 hinges (現在와 過去의 連結)의 役割 (지금 느낀 일이고 過去에 느낀 일이기도하다)을 하고있으며 "something awful"한일 即 Peter와의 사랑의 破局이 回想되며 그 悲痛한 戀愛事件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상하게도 "cabbage"에 對한 몇 가지 對話만이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時間이 自由롭게 過去로 되 돌아가는 그녀의 一瞬—瞬의 意識에는 그녀의 過去의 集積이 凝結되고 있으며 그녀의 存在와 環境은 그녀의 意識의 흐름에 依하여 그리고 그녀의 意識의 흐름속에서 Peter가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녀와 接觸하는 사람들의 意識의 흐름에 依하여 浮刻되는 것이다.

그리고 時間이 한 사람의 內面에서 自由롭게 現在와 過去로 往來하는 것 만으로 그치는 것이

7) Mrs Dalloway (perguin Modern Classic 2259) pp.5-6

8) England 中部 Grostershire에 있는 작은마을이며 거기에는 Clarissa의 친정의 別莊이 있었다. party(第一主題)에 對한 第二主題(過去尊重)이며 그녀의 意識은 때때로 여기에 돌아온다.

아니라, 空間的으로도 A란人間에서 B란人間으로 心理는 轉換, 移動해서 場所를 바꾸며 意識은 흘러간다. 그것은 同時에 같은 場所에 있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동한다. 이와같이 空間的으로 時間的으로 人間에서 부터 人間으로 그리고 現在에서 부터 過去로 이동하는 意識의 흐름은 各各 다른 "situation"에 있는 各양各색의 變化를 傳達하면서 이 作品을 構成해주고 있다.

構成의 問題는 이미 「Ulysses」에서 試圖된 「一致에의 復歸」와 同一한 形式을 取한 것이지만 是 作品의 貧弱함과 單調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回想과 劇的인 對位法을 使用하는 實驗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宗횡으로 오고가는 意識의 흐름이 散漫해 지지않도록 하기위하여 時間과 空間과 心理的인 面에서 統一의 效果를 얻을수 있는 方法을 構究했다.

前述한 Clarissa 中心의 "main-plot"와 Septimus 中心의 "by-plot"는 對比의 效果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Clarissa의 하로와 Septimus의 하로는 調和되어서 結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實際로는 이 두사람이 한번도 만나는 일이 없다. 이 두개의 "Plot"는 Peter가 Septimus夫婦를 Regent's Park에서 보는 것과 Septimus의 遺骸를 運搬하는 救急車를 Peter가 보는 두 場面에서 만이 接觸된다. 最後에 Septimus-group의 Sir William夫婦가 Clarissa의 Party에 와서 그 席上에서 Septimus의 죽음을 알리게 된다. 그때 Clarissa는 內的獨白을 通하여 그 未知의 青年이 自己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痛切하게 느낀다. 여기에서 두개의 "Plot"는 Clarissa의 意識속에서 完全히 單一化된 형태로 溶解結合되어 作品의 Climax를 이루게 된다.

時間的으로는 「心理的時間」에 對한 「物理的時間」의 衝擊으로 特히作家의 無常迅速感을 상징하는 "Big Ben"의 종소리가 일곱번 되풀이해서 나오는데에서 얻어지는 效果이다. Big Ben이 울리는 現在時는 人間의 意識속에서 往來하는 過去時나 未來時를 한 瞬間點에 固執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Woolf는 Big Ben의 鐘소리에 人物들을 總括한다.

It was precisely twelve o'clock : twelve by Big Ben : whose stroke wafted over the northern part of London : bent with that of other clocks : mixed in a thin ethereal way with the cloud and whisp of smoke, and died up there among the seagulls—twelve o'clock struke as Clarissa Dalloway laid her green dress on her bed, and the Warren Smiths walked down Harley Street. Twelve was the hour of their appointment, probably, Rezia thought, that was Sir Willian Bradshaw's house with the grey motor car in front of it. The leaden circles dissolved in the air.⁹⁾

空間的으로도 역시 時間的인 것과 비슷한 方法이 適用된다. Woolf의 Camera는 皇后폐하가 타고 있을런지도 모를 自動車가 달려가는 沿道를 따라가서 Buckingham Palace의 門前에 모인 群衆들을 捕捉한다. 그런데 이 自動車가 Bond街에서 Piccadilly를 거쳐 St Jamess街로 돌아가

9) Mrs. Dalloway, p. 42

는 동안 그 沿道에 서있던 사람들은 어느瞬間 그 自動車에 視線이 集中된다. 다시말해서 自動車는 수많은 사람들의 意識을 하나로 연락하는 役割을하고 있는 것이다.

Buckingham Palace의 門前에 모인 群衆들이 自動車를 기다리고 있을때 사탕菓子を 광고하는 비행기가 上空을 날은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의 視線이 그 비행기에 集中된다. 이 비행기는 地上의 모든 場所와 人物들을 同時에 連絡統合하고 있는 所謂 "Concentration"인 것이다. Mrs. Coats, Mrs. Bretchey, Mr. Bowley 그리고 Septimus도 Lucrezia도 Mrs. Dempster도 모두가 비행기를 본다. 비행기는 London의 上空—Regents Park, Mall街 그리고 Ludgate Circus, Greenwich할것 없이 그외의 모든場所 위를 날은다.

사람들의 意識은 이 비행기에 結付되어서 聯想作用을 일으킨다. 現代의 科學文明을 생각하고 外國에 가보기를 願하고 神과의 對話를 하기도하며 男便의 건강을 생각하기도 한다. 모든사람들(意識의 흐름)과 모든場所(空間)는 各各 한가닥의 실로 비행기에 連結되어 하나로 묶어지는것이므로

그리고 心理的인 要素로서 「Fear no more」¹⁰⁾의 어구가 反復되어 效果的인 "refrain"의 役割을 하고있다. 이 句節은 이 小說에서 "leit-motive"가 되어있는것이며 하나의 主題的인 意味와 더불어 構成上의 面에서 複合的統一效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해서 Woolf는 最後에 "Part y"라는 便利한 手段으로 같은 時間에 같은 場所로 사람들을 集合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은 實驗은 앞에서 열거한 序頭의 文章에서 보는 것처럼 "plung" (아침 空氣속으로 뛰어드는 것)가 "by-plot"의 終末인 Septimus의 投身自殺과 呼應한다든가 꽃을 사러가는 것이 小說의 終末인 "party"와 照應하여 調和를 이루는등 여러가지 精巧한 方法과 더불어 斷片的인 코드 散漫한 印象의 集積을 有機的으로 統一시키고 있다.

물론 Woolf는 先輩大家나 特히 同時代의 作家들에게 배우는 바가 많았다. 主로 James Joyce나 Dorothy Richardson 그리고 Marcel Proust등에게 배웠다. Henri Bergson의 「純粹持續」이라는 철학사상이나¹¹⁾ 印象의 追求에 따라 찰나에 生命의 充足을 發見하는데 몰두한 Walter Pater의 영향도 받고있다. 그리고 Woolf는 記憶心象의 繼起를 精緻하게 엮었던 Proust의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의 手法등도 攝取吸收하여 人間의 經驗의 全容을 連續的인 흐름

10) *ibid.*, p12. Shakespeare "Cymbeline, iV ii.":

"Fear me no more the heat o' the sun/Nor the furious winters rages:/ Thou thy wordly task hast done, / Home art gone, and ta'en thy wages:/ Golden lads and girls all must, /

As chimney-sweepers, come to dust." Guiderius와 Arviragus가 Imogen (實은 假死狀態)을 埋葬할 때 前者가 부르는 dirge. Imogen이 後에 蘇生하는 것은 Clarissa 自身이 죽지않는 것을 象徵한다.

11) 概念的 体系構成을 排除하고 意識의 直接與件으로서 直觀되는 純粹持續을 空間化되지 않는 眞實한 時間이라고 하고 이것은 自由로운 運動 그 自体라고 解釋하여 거기에서부터 身心의 關係나 生命의 進化나 道德宗教에 關한 唯物論的學說을 發展시켰다.

으로써 示하는 方法을 得었던 것이다.

이러한 獨創性的의 發揮은 確實히 技巧의 勝利이며 誠實한 예술성의 發露이다. 그리고 그 流動的인 意識의 世界에는 一面社會에 對한 예리한 批判的要素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人生의 本質的인 深奧한 根源을 파고들면서 作品에 均衡을 주고 있는 것이다.

II

이 小説은 分明히 英國社會에 對한 풍자이다. 때때로 抒情性을 發揮하는 流麗한 文体에도 불구하고 冷笑와 풍자가 그 날카로운 칼 날을 到處에서 드러내고있다. 特히 Dr. Holmes나 Sir. William의 戲畫化는 痛烈하며 Party에 나타나는 國務總理의 風貌에는 苦笑를 禁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Woolf의 人生探求는 「Jacob's Room」에서 進一步하여 「Mrs. Dalloway」에서는 하나의 社會를 代表하는 상류부인의 性格과 環境을 그 寫하는 의도가 보인다. 비록 여기에서는 個人과 社會의 調和나 유통이란 問題는 明確히 提示되어 있지는 않으나, 矛盾 많은 文明社會에 예민한 비 판정신이 加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長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小説의 中心主題는 아니다.

앞에서 「個人이 처음에는 孤獨속에서 다음에는 社會속에서 存在할때의 內的生活의 研究」라고 말했다. 이 個人과 個人, 그리고 個人과 全體의 問題에서 主題의 意義를 發見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必然的으로 相互關係에 놓여진 人間만이 아니라 「現實」과의 關係에 놓여진 人間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Clarissa Dalloway의 現實은 果然 어떠한 것이었을까 Clarissa는 옛 愛人 Peter가 訪問한때 강렬한 사랑의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瞬間 冷靜을 되 찾는다. 이 再會는 過去의 追憶을 불러일으켜 現在의 平凡한 中年을 의로워하는 Clarissa의 心情을 한층 더 沈沈하게 하지마는 이제와서는 Bourton에서의 破局은 이미 그녀의 고민의 중심은 아니다. 오히려 Peter의 끈질긴 愛慾은 Kilman의 狂信과 더불어 혐오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Love and religion! thought Clarissa, going back into the drawingroom, tingling all over. How detestable, how detestable they are! For now that the body of Miss Kilman was not before her, it overwhelmed her—the idea. The cruelest thing in the world, she thought, seeing them clumsy, hot, domineering, evasdropping evasdropping jealous, infinitely cruel and unscrupulous dressed in amackintosh coat, on the landing: love and religion.¹²⁾

12) Mrs Dalloway, p. 140

그렇다고 해서 Clarissa의 結婚生活이 滿足스러운 것은 아니다. 물론 男便 Richard는 誠實하고 善良한 신자이다. Clarissa는 Richard의 親切하고 實際的이며 良識이 豊富한 性格에 그녀가 必要로 하는 정신적인 支柱를 發見하고 그에 依支하여 때때로 人生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Clarissa에게는 處女때 부터 所謂 "Coldness" "Woodenness"라고 하는 傾向이 있어서 부부생활의 面에서 男便에게 失望을 준일이 여러번있었다. 더욱 이 大患을 앓고난 後로는 고민은 더하여 "Narrower and narrower would her bed be"¹³⁾라고 한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男子對女子라는 性의 要素에 強勢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眞理의 立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卽 理性的 眞理와, 想像의 眞理의 問題인 것이다. 理性的 眞理는 一般的으로 男性의 世界이고 想像 또는 直覺의 眞理는 女性的인 世界이며, 이 두개의 眞理는 結合되어 現實을 形成한다. Clarissa는 Richard의 親切이나 그녀 自身の 生活의 여러가지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現實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Clarissa에게는 Elizabeth라는 딸이 있다. 그러나, Elizabeth는 어머니를 닮지않아 社交에는 關心이 없고 그 보다도 無神論者인 Clarissa는 狂信의 인 Kilman의 影響을 받고 있는 딸을 理解할 수 없으며, Kilman에게 딸을 빼앗길것이 아닌가하고 不安을 느낀다.

社交를 좋아하는 Clarissa는 Party를 연다. Party는 사람들을 結合시켜주고 그들이 自己自身의 本質的인 고독에서 도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what did it mean to her, this thing she called life? Oh, it was very queer. Here was so-and-so in South Keusington: someone up in Bayswater: and somebody else, say in Mayfair. And she felt quite continuously a sense of their existence: and she felt what a waste: and she felt if only they could be brought together, so she did it. And it was an offering: to combines, to create: but to whom? ¹⁴⁾

그러나, Party가 한참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Clarissa는 空虛感에 사로잡혀 自身の 社交生活속에서 귀중한 것이 墮落과 虛僞와 雜談의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져 간다고 생각한다. 그 席上에 나타난 Sally의 모습도 이미 옛 時節의 光彩는 사라지고 再會의 기쁨도 少女時節의 熱熱한 同性愛와는 비길데 없는 平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戀愛, 夫婦愛, 母性愛 友情, 社交等等 이러한 것은 모두가 個人과 個人을 結合하는 愛情의 形式이다. 그러나 Clarissa는 그러한 어떠한 "Personal"한 愛情에도 滿足하지 못한다. 이러한 人間의 高독—여기에 하나의 中心主題가 있다.

그러면 그 "Personal"한 愛情에 대신할 眞理를 어디에서 求할 것인가 少女時節 Sally와 더불어

13) *ibid*, p. 35

14) *ibid*, p. 135

어 社會改造를 論하는 當時에는 Clarissa는 政治속에 眞理를 探求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의 Clarissa는 남의집 문간앞에 조구리고 앉아있는 비참한 女子들도 마찬가지로 人生을 사랑한다는 理由때문에 法律로서는 處理할 수 없는 것이라는 政治에의 不信을 表明한다.

政治가 個人과 個人間的의 結合을 超越한 個人과 全体와의 結合의 形式이라며는 宗教는 確實히 보다더 本質的인 또하나의 全体와의 結合의 形式이다. 이 宗教속에서 Clarissa는 “reality”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동생 Silvia의 不慮의 壓死를 目擊한 後로는 徹底한 懷疑主義者가 되었다.

.....As the whole thing is a bad joke, let us, at any rate, do our part: mitigate the sufferings of our fellow-prisoners: decorate the dungeon with flowers and air-cushions: be as decent as we possibly can. Those ruffians, the Gods, shan't have it all their own way—her notion being that the Gods, who never lost a chance of hurting, thwarting and spoiling human lives, were seriously put out of it, all the same, you behaved like a lady. That phase came directly after Silvia's death—that horrible affair. To see your own sister killed by a falling tree (all Justin Parry's faults—all his carelessness) before your very eyes, a girl too on the verge of life, the most gifted of them, Clarissa always said, was enough to turn one bitter. Later she wasn't so positive, perhaps: she thought there were no Gods: no one was to blame: and so she evolved this atheist's religion of doing good for the sake of goodness.¹⁵⁾

結局 Clarissa는 神은 없다고 생각하며, 宗教에서는 “reality”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人間은 宇宙의 本質에 communicate 할려고 하지만 到達할 수 없다는 것을 痛感한다. 本質은 人間을 피하고 親近感은 後退하고 황홀감은 희박해지며 人間은 홀로 버려지게 된다. 客觀的인 “reality”를 파악할 수 없는 “incommunicableness”—여기에 Clarissa의 한층 더한 本質的인 고독이 있다. 이것이 또하나의 中心主題이다.

愛情에도 만족할 수 없고 “reality”도 파악하지 못하는 Clarissa의 고독은 어디에 도피구를 찾을 것인가? 죽음만이 唯一한 窮極的인 解決일까? 죽음에 依해서만이 人間은 自我의 監獄에서 벗어나 萬象의 一部가 될 수 있는 것일까?

.....did it matter that she must inevitably cease completely: all this must go on without her: did she resent it: or did it not become consoling to believe that death ended absolutely? but that somehow in the street of London, on ebb and flow of things, here, there, she survived, Peter survived, lived in each other, she being part, she was positive, of the trees at home: of the house there, ugly rambling all to bits and pieces as it was: part of people she had never met:

15) ibidpp.86-87

being laid out like a mist between the people she knew best, who lifted her on their branches as she had seen the trees lift the mist, but it spread ever so far, her life, herself, 16)

Septimus는 또하나의 고독한 人生이다. 그는 人類에게 「美와 愛」의 福音을 傳達하기 위하여 再臨한 救世主라고 妄想한다. 이 反社會的인 精神病患者의 內面이 宇宙觀이라고도 할 수 있는 形而上的인 명상에 充滿해 있다는 것은 Party를 “offering”이라고 생각하며 自慰하는 Clarissa의 意識과는 거의 正反對의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사람은 究極에는 同一線上에 서게 된다. 이것은 죽음이다.

Septimus가 診察을 받은 Sir William은 科學의 사제이다. 그가 봉사하는 女神은 Proportion과 Conversion이다. 그가 말하는 proportion이란 「美와 사랑」이나 福音같은 것은 혼해빠진 妄想이고 人生에 對한 失望等은 法律로 다스려야할 犯罪라고 생각한다.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모든 異端者의 모든 反社會的인 그의 Proportion에 違背되는 衝動은 彈壓되어야 한다. 이것이 Conversion이다. Dr. Holmes는 더욱 그를 俗惡化한 存在이다. Sir William은 당연히 Septimus의 強制隔離을 宣言한다.

Septimus는 Dr. Holmes의 往診을, 그를 收容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自殺한다. Septimus의 主觀에서는 Dr. Holmes나 Sir William은 “human nature”의 權化이다. Septimus 自身은 罪를 지어서 “human nature”에게 死刑宣告를 받았다. 그런데 “human nature”는 코구멍이 피 같이 빨간짐승이고 同僚가 일단 쓰러지면 당장에 달려들어 갈래 갈래 찢는다. 이런놈들에게 붙잡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悲劇의 소식을 들었을때 Clarissa는 거의 鉄柵이 그의 머리를 깨물으는 肉體的인 感覺까지도 實感한다. 그리고 Clarissa의 深思는 다음과 같이 展開되어간다.

She had once thrown a shilling into the Serpentine, never anything more, but he had flung it away. They went on living (She would have to go back: the rooms were still crowded: people kept on coming). They(all day she had been thinking of Bourton, of Peter, of Sally), they would grow old. A thing there was that mattered; a thing“ wreathed about with chatter, defaced, obscured in her own life, let drop every day in corruption, lies chatter. This he has preserved. Death was defiance. Death was an attempt to communicate, people feeling the impossibility of reaching the centre, which mystically, evaded them : closeness drew apart: rapture faded, one was alone. Ther was an embrace in dcath

이와같이 Clarissa는 Septimus의 죽음은 “incommunicableness”에 對한 도전이며, 그는 그

16) *ibid*, pp.11-12

17) *ibid*, pp.203-204

속에서 宇宙의 本質을 포용할 수 있었다고 羨望하고 最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She had somebody very like him—the young man who had killed himself. She felt glad that he had done it; drown it away while they went on living.¹⁸⁾

Septimus는 Clarissa의 主觀속에서 그녀의 分身인 것이다.

그러나 Clarissa는 Septimus처럼 죽지는 않았다. 그것은 죽음에 對한 공포심이 컸던 反面에 몹시 生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녀가 사랑했던 生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日常生活의 세세한 움직임 안에서 瞬間적으로 捕捉되는 人生的 美인 것이다.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life, London, this moment of June”¹⁹⁾이며 “...here, now, in front of her, the fat lady in the cab”²⁰⁾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對象은 未知의 人物이건 無生物이건 相關이 없다. “Personal”한 사랑의 變質성을 벗어난 主觀的인 “Solid”한 愛情인 것이다.²¹⁾

Clarissa는 日常生活의 細細한 일속에 美를 發見하고 그것을 瞬間속에 凝縮하여 吟味하므로서 사는 보람을 느끼는 知慧를 익히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生의 禮讚은 瞬間의 意識속에 捕捉된 美가 다음 瞬間 사라져 버리는 幻滅이 아니라 「자기의 意識이 아직 말해본 일도 없지마는 奇妙하게 親近性을 느끼는 거리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波及되고, 아니 이 곳 저곳 어떠한 場所에 마저도 定着되어서 소생할런지도 모른다」²²⁾는 “transcendental”한 一種의 雲魂不滅說에 까지 發展되는 것이다.

이러한 人生的 기쁨은 老年에 이르러 充分히 맛볼 수 있는 것이다. Clarissa는 차례 차례로 暗黑속으로 사라져가는 男女를 바라보며 夜會服을 입고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it was her disaster—her disgrace”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다음 瞬間에는 「이러한 황홀과 靑春의 기쁨이 끝나고 다만 日常生活의 過程에 몰락하는 가운데 해가 뜨고 해질때 느끼는 기쁨의 衝動에 더한 슬픔은 없다」²³⁾고 되새긴다. 이와같이 日常生活의 細細한 움직임 가운데 瞬間적으로 美를 知覺하므로서 人生을 사랑한다는 主張—이것이 또하나의 中心主題이다.

Clarissa에게는 一面 強靱함과 忍耐力 그리고 困難을 克服하는 힘이 있어서 이 불굴의 生命力 [o 中年의 의로움을 拂拭할 수 있었다. 「Fear no more」의 구절을 읽고 現代의 男女의 마음속에 “a well of tears” 그리고 “courage and endurance: a perfectly upright and stoical bearings”²⁴⁾를 남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傾向을 意味한다. 그리고 이러한 勇氣를 나

18) ibid, p. 206

19) ibid, p. 6

20) ibid. p. 11

21) ibid, p. 88

22) ibid, p. 169

23) ibid, p. 205

24) ibid, p. 12

이가 많아 짐에 따라 더 尊敬하게 되었다고도 말한다.

부부간에도 “gulf”²⁵⁾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人間의 고독의 表象이며 同時에 그 尊嚴의 標識이기도 하다. 고독을 尊嚴이라고 斷言하는 데는 크나큰 勇氣가 必要하다. Clarissa는 건너편 집에 노부인이 홀로 寢室에서 움직여 다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here was one room;there another. did religion solve that, or love?”²⁶⁾

라고 외친다. “room”은 “Privacy of soul”의 保障을 상징한다. 그러나, 뒤집으면 “isolation of human being”의 標章이기도 하다. 이것이 人生의 玄妙한 實相이며 노부인의 조용한 生活속에 그것이 啓示되어 있었다. 이 雲魄의 嚴格한 現實을 이렇게 肯定하는 勇氣가 생각되어야 한다. Clarissa는 홀로 잠자리에서 노부인을 보면서 魅惑의 光景이라고 생각한다. 노부인이 불을 끄자 온 집안이 어둠속에 묻혀버린다. 이때 또 다시 “fear no more”의 구절이 되살아 난다. 이것은 自殺을 앞두고 森羅萬象이 그 보물을 그에게 쏟아놓을 것같이 생각되었을 때 마치 “Telephacy”에 依한 것 처럼 그녀의 分身인 Septimus의 腦裏를 스쳐간 語句이다. 그것은 本來 現世의 火室을 넘은 青年에 對한 鍊魂曲이기도 하며 또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노부인을 찬양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Clarissa가 自己自身을 激勵하는 문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고독의 現實을 敢然히 肯定하는 “integrity”— 여기에 또 하나의 中心主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Woolf가 강렬하게 意識한 것은 새롭고 重要的한 것을 認識하여 그 認識에 對하여 適當한 技術的反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作風의 第一의 轉回는 行動이나 肉體의 世界를 “apparition”으로 보고 그 內部에 깔려있는 어두운 意識의 영역만을 眞實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다. 그리고 感受性만이 唯一한 現實을 表現할 수 있는 것이므로 個性과 個性과의 交感만이 重要視되는 것이다

이 小說의 主人公 Clarissa의 고독감은 社會에서 絕緣된 自我의 運命이라고 할까 높은 知이를 지닌 現代 一般人의 宿命이라고 할까, 아니면 오히려 이 고독감과 同居하며 그것을 通하여 切迫해오는 外部現實에 對決해야만 하는 條件을 가진 性格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러한 Clarissa性生의 끊임없는 進行은 瞬間속에 人生의 美를 捕捉하여 生을 사랑하고 勇氣와 忍耐에 依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이것은 또한 Septimus의 狂氣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心理와도 一脈 相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人間相互間의 行爲가 아니라 人物들의 日常生活, 人生의 모든 事象과 日常的 接觸인 것이다. Clarissa의 對象은 行爲나 危機에 對해서 나타나는 性格의

25) *ibid*, p. 132

26) *ibid*, p. 141

아니라 存在의 狀態인 것이다.

이 「存在의 詩」라는 觀念은 時間과 直結되는 것이다. 日常性의 名目下에 그늘속에 떠밀린 時間은 生과 死의 統一原理인 것이며 眞實한 "reality"를 傳達하기 위해서는 主題는 그 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Woolf의 固定思想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Woolf는 形式에 있어서 三一致의 法則을 適用하는 實驗을 했다. 이 實驗에서 그녀는 可能한 모든 技術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對位法을 使用해서 單調를 避하고 構造를 二元化했다. London이란 背景과 Clarissa가 親密하게 結付되어 있는 것은 Wordsworth의 「The Prelude」와 살아있는 存在, 깊은 歡喜의 源泉으로서의 自然과의 關係 바로 그것이다.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統一의인 效果를 얻을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여 作品에 調和를 이루고 있다.

Woolf처럼 오직 人間精神의 미묘한 陰影을 描寫하는데 專念한 作家에게는 題材가 局限되어 야만 했을 것이며, 必然的으로 技巧의 實驗이 不可避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小說에서는 劇的인 展開는 없으나, 平凡한 日常性에서 人間存在의 眞理를 求하고 있어 親近性을 주고 있으며 有機的이며 巧緻한 手法은 作品에 統一性을 가져와서 보다 明確하고 理解하기 쉽게 해주고 있다.

— 參 考 文 獻 —

- 1) J. W. Beach, The Twentieth Century Novel: Studies in Technique. N. Y. & London: Appleton-Century company, 1932.
- 2) E. M. Foster, Aspects of the Novel, London: Eduard Arnold, 1927.
- 3) B. Blackston, Virginia Woolf: A commentary, London: Hogarth press, 1949.
- 4) G. S. Fraser, The Modern Writer and His World, Tokyo: kenkyush, 1951.
- 5) J. Herbert, Modern English Novelist, Tokyo: kenkushd, 1969.
- 6) A. D. Moody, Virginia Woolf, Edinburgh & London: oliver & Boyd, 1963.
- 7) D. David: The presnt Age from 1920. Lcndon: Cresset press, 1958.
- 8) B. Blackston, Virginia Woolf, London: Longmans, 1952.
- 9) 柴田徹士, Mrs. Dallanay, 東京, 研究社, 1955.
- 10) 大澤實, Virginia woolf, 東京 研究社, 1966.

—Summary—

Mrs. Dalloway: Experimentation and Theme.

Kim Soo-jong,

Virginia Woolf was the daughter of the great Victorian mountaineer, rationalist, critic and scholar, Sir Leslie Stephen, and thus a member of one of these great families of the Victorian intellectual aristocracy. Behind all her subtle and exact sensibility to shades of mood, there is the background of her father's study agnosticism and of the firm, if rather sad, rationalism of the Cambridge school of philosophy.

Her first novel "The Voyage Out" had a sketchy plot, but it attracted most attention for its unusually sensitive and, complex approach to ordinary experience. "Night and Day" was also cast in the conventional mold, although less successful. "Monday or Tuesday",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and the novel "Jacob's Room" mark the beginning of Virginia Woolf's experimentation: with "Mrs. Dalloway" she entered the front ranks of British writers.

She utilized in "Mrs. Dalloway" the interior monologue to bend time and space to her purpose: standing still in time and moving from character to character, or standing still in space, with one character's consciousness moving forward and backward in time. In this experimental novel, what she was most aware of was "the loneliness" and "the incommunicableness" of life.

The art of Virginia Woolf is a delicate and intricate counterpoint of people, sensation, intuitions.